

타축종 의무자조금 활용실태와 양계 의무자조금 필요성

**양돈자조금**

양돈자조금 주요 추진 내역

2004년 4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양돈의무자조금 거출은 우리 양돈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을 뿐만 아니라, 이후 타 농업 분야까지 파급되어 우리나라 자조금 역사의 시작으로 기록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같은 형태의 의무자조금제도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도입한 제도로, 이처럼 농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기금을 조성해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도 매우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농업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조금 제도의 도입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금의 조성 및 집행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당초 의무자조금제도의 법제화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양돈자조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후 한우, 낙농 등 타 축종에서도 자조금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기타 화훼, 파프리카 등 농산물 분야의 자조금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수산물 쪽에서도 자조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향후에는 전 농업 분야에 자조금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고진각**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08년도 양돈자조금 주요 추진 내역

자조금은 한 번의 도입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대의원회에서 자조금 거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2004년에 처음 거출을 시작한 양돈자조금은 2008년에 제 2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거출금은 1기에는 400원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돼지 1두당 600원씩 거출하고 있다.

2008년에 조성된 농가거출금은 76억원이고 정부지원금은 74억원으로 2008년도의 조성액은 160억원에 달했다. 사업은 소비홍보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조사연구사업 및 거출홍보사업 등에 쓰여졌다. 2008년도 조성액 및 각 사업별 예산 규모는 표 1과 같다.

표1. 2008년도 양돈자조금 세입 및 세출 실적

(2009. 1. 19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계획(A)	실적(B)	B/A
조성	농가거출	7,410,000	7,606,700	102.7
	정부지원	7,400,000	7,400,000	100.0
	예치금이자	-	51,790	
	사업외수익	-	613	
	이월금	1,137,757	1,137,757	100.0
	계	15,947,757	16,196,860	101.6
지출	소비홍보	9,302,270	9,263,825	99.6
	교육 및 정보제공	3,719,723	3,542,454	95.2
	거출홍보활동	137,000	134,333	98.1
	조사연구	1,389,050	1,382,176	99.5
	징수수수료	370,500	344,569	93.0
	운영관리비	621,654	528,651	85.0
	예비비	407,560	0	-
	계	15,947,757	15,196,008	95.3



소비홍보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V, 라디오광고의 비중은 해마다 점차 축소되는 반면, 농가 교육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예산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또한 2008년을 기점으로 조사연구사업의 예산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양돈농가의 요구가 소비촉진보다는 수입산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산성 향상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신기술 확보 및 보급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옮겨가기 때문이다.

이 같이 사업의 추진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다. 양돈자조금 자체가 농가의 의지로 시작되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와



같은 의사 결정의 과정이 최대한 많은 농가의 의사를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맺음

지면의 제한으로 대략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자조금이라는 제도가 사업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 못지 않게, 전 농가의 기금 조성의 참여, 농가 의지에 의한 사업의 집행이라는 운영 구조를 통해 사업의 주체로서 농가, 나아가 우리 농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의미도 크다고 본다. 물론 그 전에 앞서서도 말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금의 조성 과 집행에 대한 전 농가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계 농가가 자조금 시행에 한 뜻을 모았다면, 그 자체로서도 자조금 성과는 반 이상 이룬 것이다. 많은 분이 뜻을 모았다면 일부 뜻을 함께 하지 못한 농가도 아낌없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만약 사업에 성과가 없다면 4년 뒤의 대의원회에서 심판이 가려질 것이다. **양계**

